

월요논단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변하지 않는 제주의 개발패러다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비자림로 확포장사업도 생태도로계획 추진으로 수정해 재추진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많다. 동물테마파크사업은 사업 추진 예정지가 곳자왈이라는 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년 전부터 제주도정에서는 곳자왈공유화재단을 설립해 곳자왈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해 오고 있으나 사유토지 매입이 여의치 않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만 평의 곳자왈 지역을 훼손하는 테마파크 개발허가는 곳자왈보전 의지와 반대되는 개발정책이다. 도시바람길숲사업은 주변생태환경과 연계한 도시 내 바람길을 조성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본취지이다. 사업의 취지와 달

리 가로수를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을 식재하는 것으로 변질됐다는 보도는 근본적으로 도시바람길숲사업의 개발방식에 문제가 있다. 도시내 존재하는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악하고 빛과 바람의 흐름에 대한 도시생태지도를 조성한 후 도시공원과 자전거, 보행로와 연계되도록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식생을 선택해 숲을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전국적 이슈였던 비자림로 확포장도 제주의 도로 건설정책과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개발방식이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위해 600만 그루를 식재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녹지공원정책과 탄소제로 섬 구상의 난맥을 보여주는 오등봉도시공원 사례도 있다. 민간에게 특례라는 혜택을 주며 대규모단지를 개발하고 행

정이 주도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현재 제주도는 빈집문제와 함께 미분양 주택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는 신규주택공급만으로 주거 문제와 환경을 개선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그리고 오염원 도정에서 거론하는 지역불균형의 문제를 고민하며 제주 동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합리적 설득력이 없는 부분이다. 오 도정의 비전은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이다. 공약에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불제', '15분도시제주'이다. 난개발사업으로 비판받는 동물테마파크, 도시바람길숲, 오등봉민간특례사업, 비자림로 확포장사업들이 사람·자연 모두 행복하도록 행정개발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동물테마파크, 도시바람숲, 오등봉민간특례사업, 비자림로 확포장사업들은 여전히 난개발 논란의 진행형이다. 도시바람길숲을 제외하고 도정에서 시작된 개발사업이기는 하지만 개발사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생태환경 훼손의 논란이다. 동물테마파크는 곳자왈 지역이고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지는 도시공원 예정지이다. 도시바람길숲도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도시지역 주변의 자연환경과 연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을

사설

갈등현안 해결에 도정 역량 발휘해야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평가할 때 검토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등 각종 현안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민선8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던 주요 현안들이 전혀 진척을 못보고 있어서다. 환경기초시설인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를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공사 재개조차 못하는 등 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결과 결과 공개 여부가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오염원 지사가 지난 달 도의회 도정질문에 출석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용역 결과 공개를 촉구했으나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일일 금액을 징수하는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 여부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2015년부터 논의됐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도 새 도정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오염원 도정은 사실상 내년부터 본격 시작된다. 때문에 내년 설사업은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공사 재개조차 못하는 등 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결과 결과 공개 여부가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오염원 지사가 지난 달 도의회 도정질문에 출석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용역 결과 공개를 촉구했으나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일일 금액을 징수하는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 여부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열린마당

함께 하는 모세의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



김성현 서부소방서 영어교육도시 119센터

'모세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모세의 기적'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던 중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났던 바닷길은 그들에게 기적의 길이자 생명의 길이였다. 모세의 기적처럼 우리의 주변에도 기적의 길, 생명의 길이 생긴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굳건하고 안전한 것이다. 최근에는 소방 차량에 길을 비켜주는 광경을 빚어 현대판 '모세

의 기적'이라고 한다. 소방관들의 신속한 출동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소방 차량의 도착시간은 인명 및 재산 손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신속하게 신고자가 원하는 위치로 출동해야만 한다. 즉, 소방 차량의 출동에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과 연결된다.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을 통해 예전에 비해 소방 차량에게 양보하는 차량이 많이 증가했지만,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와 더 이상 증설이 어려운 도로,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 차량의 출동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지켜지기 위해 1분 1초를 다투는 골든타임을 위한 실천 과제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의용소방대, 지역 안전의 파수꾼"

도내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제주지역에서 소방대원들과 함께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제주의용소방대가 올해도 특색을 활약하며 눈길. 25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의용소방대는 올해 소방활동 1만720회, 노인돌봄서비스 1만6492회, 주택안전점검 781회,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2598대 등의 실적을 올리며 도내 곳곳에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며 동분서주.

박근우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제주의용소방대는 올 한해 각종 재난현장 지원활동과 함께 다양한 안전활동을 펼치며 도민들의 삶 깊숙이 온기를 전했다"라며 "내년에도 헌신과 봉사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한다. 이상민기자

강풍 폭설로 인한 결항 속출

○...강풍과 폭설로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제주를 떠날 예정이던 관광객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을 찾았던 도민 등 수만명이 각각 발이 묶여 불편.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750편이 넘는 항공기가 결항되자 대체 항공편을 알아보거나 예약 변경을 위해 공항에 대기 승객들이 몰리면서 표 구하기 전쟁도 벌어져.

관광객 양모(40)씨는 "항공사고객센터 전화가 불통이라 불안한 마음으로 공항을 찾아 어렵게 24일 김포행 항공편을 예매할 수 있었다"고 토로. 도민 이모(31)씨도 "김포공항 인근 숙소에 머물며 24일 오후 항공편을 겨우 예약했고 혹시 운항되지 않을까 불안했다"고 전해. 박소정기자

기업 1년 생존 전국 최저, 오 도정 직시를

도내 기업들의 1년 생존율이 전국 최저로 나타나 충격이다. 제주도의 산업 특성상 관광 관련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의 높은 비중이지만 폐·창업 반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을 감안하면 매우 우려되는 통계다. 오 도정이 출범후 여러 경제정책들을 추진중이지만 기업들 입장선 성장보다 '생사'에 더 비방을 지르는 현실에 우선 눈을 돌려야 할 상황이다. 최근 통계청의 '2021년 기업생명행정 통계 결과'를 보면 2019년 기업을 창업해 2020년까지 경영한 도내 기업 1년 생존율은 63.2%로 전국 평균 64.8%를 밑돌고, 전국서 가장 낮았다. 기업 10곳중 거의 4곳이 1년도 안 돼 폐업했다는 얘기다. 기업 생존율은 매년 낮아져 7년째엔 25.6%로 추락, 4곳중 1곳만 존재했다. 도내 영리기업중 매출액

이나 상용근로자를 둔 활동기업이 10만6461개로 전년 대비 4.2% 늘었지만 상당수가 1년을 못 버티거나, 버티더라도 7년을 못 버틴 결과다. 오 도정이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역설하지만 '기업 망하기 십상인 제주'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제주가 관광업 중심의 산업 구조 특성상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의 높은 비중 탓에 의외로 많은 창·폐업 비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기업들의 생사가 산업구조 특성으로만 돌려 경제적 제고를 도외시 할 수 없다. 오 도정이 내세운 성장기업 육성·유지, 수출 다변화 등 정책과 더불어 질실해진 기업 '생존수명' 늘리기를 쟁야 한다. 기업 창·폐업 증가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이상 지출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할 때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계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투데이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토묘목?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피종해서 키운묘목을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잔뿌리 형성에 좋으며 미수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굴 / 금굴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게
농업회사법인(주)장원농장
제1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3083 / 제2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2998
총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감귤묘목 분양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나는봉 2년생
● 미니향 2년생 ● 레몬3년생,
● 제라몬2년생 ● 미니몬1년생
● 하굴(아마나스)1~4년생
※ 극조생 & 조생
● 궁천조생1~3년생 ● 유라조생1~2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히노아까리 3년생
● 오히라베니와세(궁천번이치) 1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한라봉 외
※ 탕자묘목
민성종묘는 총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강정동465-1, 1013-1, 2327-1 하예동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총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하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 010-7301-7737